

영광에 세계 첫 직구동 전기차 모터 공장

영광에 세계 최초로 직구동(Direct Drive) 전기자동차 모터 생산 공장이 들어선다.

전남도는 8일 오후 도청 정약용실에서 박준영 전남지사, 정기호 영광군수가 참석한 가운데 전기차 연구개발·제조업체인 에코넥스와 투자 협약을 체결하고 직구동 모터 시연회, 직구동 전기자동차(RV개조차) 시승행사를 했다.

이번 협약에 따라 에코넥스는 앞으로 2년간 840억원을 들여 영광 대마일반산업단지 내 6만 6000㎡ 부지에 직구동 모터 공장을 건설하고 연간 직구동 모터 1만5000개를 생산할 계획이다.

에코넥스는 네덜란드 이트랙션사와 공동으로 전기 직구동 시스템을 개발했으며 이 기술은 기존의 엔진 차량 및 전기차와는 달리 차량 바퀴 안에 전기모터를 부착해 이 모터가 직접 차량을 구동시켜 주는 게 특징이다.

현재까지 개발된 전기차보다 높은 효율을 구



(주)에코넥스 소치재 대표가 8일 전남도청에서 박준영 전남지사, 정기호 영광군수와 투자협약을 체결한 뒤 전기자동차 직구동 시스템을 시연하고 있다. <전남도 제공>

2년간 840억원 들여 연간 1만5000개 생산

전남도-에코넥스 투자협약 체결…시연회도

현할 수 있으며 가까운 거리는 모터가 아닌, 배터리만으로도 180km 이상 운행이 가능하다는 게 업체 설명이다.

또 기존의 디젤 엔진 시내 버스와 비교해 최소 50% 이상의 이산화탄소 감소 효과와 50%의 연료 절감, 90%의 소음 감소 효과가 있는데다, 이미 버스, 트럭, 승용차 및 전동 자전거에 적용하기 위한 개발도 완료된 상태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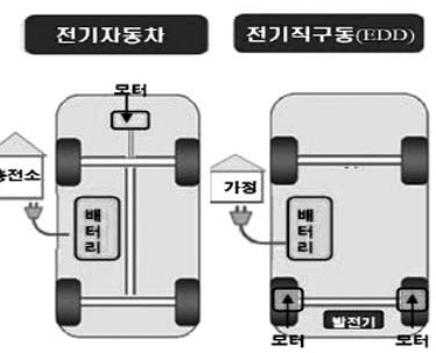
네덜란드의 경우 현재 이 같은 시스템을 장착한 시내버스가 시범 운행중이며 5년내 전체 시내버스로 확대된다. 이 버스의 경우 최고 120km 속도로 320km까지 운행할 수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에코넥스는 단기적으로는 노후 버스와 트럭에 모터를 장착, 전기차로 개조하는 사업을 비롯, 직구동 모터를 장착한 '경량차체' 전기버스, 전기 승용차 상용화도 추진할 예정이다.

전남도와 영광군은 공장이 본격 가동하면 500여 명의 고용 창출 효과가 발생, 지역 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박준영 전남지사는 "에코넥스가 녹색 산업을 선도하는 전남에서 세계적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행·재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정기호 군수도 "에코넥스를 포함해 국내외 최고 기술력과 경쟁력을 갖춘 전기자동차 생산기업 4개사를 영광에 유치하게 됐다"면서 "정부의

업무를 주시는 김지기 기자 dok2000@kwangju.co.kr



'세계 4대 전기자동차 시장 진입'의 전초 기지로의 기반 구축에 힘을 쏟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영광군은 '전기자동차 거점도시' 육성 대상지역에 전국 군 단위 중 유일하게 지정된 영광군은 대마산단에 전기자동차 관련 기업을 집중적으로 유치해 친환경 전기자동차 클러스터를 조성한다는 복안이다.

/김지기 기자 dok2000@kwangju.co.kr

'구인난' 중기 10곳 중 7곳

"임사 자격요건 낮춰 사원 뽑았다"

중소기업들은 10곳 중 7곳 이상이 구인난 때문에 임사 자격 요건을 낮춰 사원을 뽑은 적이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8일 취업·인사포털 인크루트가 중소기업 인사담당자 368명을 대상으

나 아예 요건을 없애고 채용 공고를 낸 적이 있다고 답했다. 원래보다 낮춘 자격 요건으로는 학력(52.4%)과 경력조건(20.6%), 학과(15.7%), 자격증(4.9%) 등을 꼽았다.

자격요건을 낮춰 뽑은 사원에 대한 만족도를 묻자 '보통이다'(47.6%)라는 의견이 가장 많았으나 '별로 만족스럽지 않다'(41.6%), '전혀 만족스럽지 않다'(6.4%) 등 부정적 의견도 적지 않았다.

/연합뉴스

삼성 휴대전화 북미시장 점유율 첫 30% 돌파

삼성전자가 북미 시장에서 사상 처음으로 연간 시장 점유율 30%를 돌파했다. 8일 시장조사기관 SA에 따르면 삼성전자는 지난해 북미 휴대전화 시장에서 5840만대의 휴대전화를 출하해 시장 점유율 30.2%로 시장 1위를 고수했다. 삼성전자는 북미 시장에서 2008년 3분기 이후 10분기 연속으로 선두를 달리고 있다.

이번 30% 돌파는 삼성전자가 1997년 미국 시장에 진출한 이후 연간 기준으로 최대치다. 삼성전자에 이어 LG전자는 18.9%의 점유율로 2위를 기록했고, 리서치 인 모션(RI)

2%)과 모토로라(9.2%), 애플(9.0%)이 뒤를 이었다. 국가별로 보면 미국 시장에서 5570만대를 출하해 시장 점유율 30.5%를 기록했으며, 캐나다 시장에서는 약 270만대로 25.2%를 차지해 두 나라에서 모두 1위를 기록했다.

/김지기 기자 dok2000@kwangju.co.kr

코스피지수
2,069.70 (-12.04)
코스닥지수
531.47 (+0.38)
금리 (국고채 3년)
4.06% (-0.04)
원 달러 환율
1,104.70원 (-2.80)
※수치는 전일 종가 기준

중기중앙회 김기문 회장 연임

중소기업중앙회 제24대 회장 선거에 김기문 회장이 단독으로 출마해 연임이 확실시된다. 중기중앙회는 오는 28일 정기총회에서 김 회장에 대한 찬반 투표를 진행하며, 선거인 과반수 투표와 투표자 과반수 득표로 확정된다. 임기는 4년이다.

중기중앙회는 회장 선거를 앞두고 회장 후보 출마 회원 10분의 1 이상의 추천을 받도록 한 개정 정관에

대해 일부 협동조합 회장이 법원에 효력정지 거쳐분 신청을 내는 등 내용을 겪은 바 있다.

중기중앙회는 중소기업 권익을 대변하는 경제단체로, 대한상공회의소·전국경제인연합회·한국무역협회·한국경영총협회 등과 함께 경제단체에 속한다.

/박정우기자 jwpark@kwangju.co.kr

대해 일부 협동조합 회장이 법원에 효력정지 거쳐분 신청을 내는 등 내용을 겪은 바 있다.

중기중앙회는 중소기업 권익을 대변하는 경제단체로, 대한상공회의소·전국경제인연합회·한국무역협회·한국경영총협회 등과 함께 경제단체에 속한다.

/박정우기자 jwpark@kwangju.co.kr

'1인 창조기업' 792억 지원

중기청 사업비 지난해보다 53% 증액

중소기업청은 올해 1인 창조기업

육성과 관련 사업 지원에 작년보다 53% 증가한 792억원을 투입한다고 8일 밝혔다.

1인 창조기업은 개인의 창의적인 아이디어로 지식서비스 등을 제공하는 사업체를 지칭한다.

중기청은 지난해 1인 창조기업을 이 양적으로 성장했다고 평가하고 올해에는 질적 성장을 도모하기로 했다.

1인 창조기업을 성장 단계별로 지원하고 유망 분야에 대해서는 집중적인 도움을 주겠다는 것이다.

중기청은 1인 창조기업들을 대상으로 360만원 범위 내에서 경영 교육이나 사무공간 사용 비용 등을 낼 수 있는 '1인 창조기업 비즈니스 카드'를

방침이다.

중소기업과 1인 창조기업이 한 팀이 돼 신제품을 개발하면 팀당 최대 1억원씩을 지원한다.

또 1인 창조기업이 필요로 하는 경영 상담 등을 제공하는 비즈니스 센터를 지난해 17개에서 올해는 30개 까지 늘린다.

1인 창조기업에 발주한 중소기업이 해당 지식서비스를 구매할 때 거래액의 일부를 지원해 주는 '지식서비스 구매 배우자' 제도도 운영할 계획이다. 아울러 1인 창조기업의 아이디어를 사업화하는 비용을 지원하고 기술신용보증기금 등이 1인 창조기업에 400억원 규모의 특례보증을 하는 방안도 추진하기로 했다.

중기청은 1인 창조기업들의 업종과 경력, 지역 등을 토대로 데일리베이스를 2012년까지 3천개 가량 구축하고 업체간 수평적 협업활동을 지원할 예정이다.

/연합뉴스



농협 전남지역본부 임직원 130여명이 8일 오전 지역본부 대강당에서 정도경영 실천을 서약하고 있다.

광주·전남 농협 '청렴·투명경영' 다짐

지역본부 임직원 결의대회

농협 광주지역본부(본부장 조영조)와 전남지역본부(본부장 김용복)는 8일 지역본부 대강당에서 본부장 등 임직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각각 '정도경영 실천 결의대회'를 갖고, 청렴·투명한 농협 구현을 다짐했다.

이날 결의대회는 농협 임직원들은 경영활동 과정에서 투명성과 공정성

을 유지하고 부패근절, 의식개혁을 위해 각자 맡은바 위치에서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하는 결의문을 낭독하고, 정도경영 실천 준수 서약서에 서명했다.

이들은 또 행동강령 준수, 금품과 향응 제공받지 않기, 공정한 업무처리로 부패근절, 고객으로부터 신뢰받는 농협인이 되기 등을 결의했다.

/박정우기자 jwpark@kwangju.co.kr

대우일렉 인수계약 연장 채권단 금주증 결정

이란계 다국적 기업 엔텍합그룹이 채권단과 맺은 대우일렉트로닉스(이하 대우일렉) 인수 계약 연장 여부가 이번주 중에 결정된다.

8일 금융권에 따르면 자산관리회사 등 대우일렉 채권단은 금융기관들은 오는 10일 각각 이사회를 열어 우선협상대상자인 엔텍합그룹과 맺은 계약 종결 일 연장 등의 안건을 의결한다.

대우일렉 우선협상대상자인 이란계 다국적 기업 엔텍합이 지난 7월까지 투자화약서(LOC)를 내지 못하자, 채권단은 ▲계약 종결(인수금 지급일)을 두 달가량 연장하고 ▲대우일렉의 한도성 여신 상환을 6개월 연장하는 내용 등의 2가지 안건을 채권금융기관협의회에 상정했다.

각 채권금융기관이 이사회에서 안건 등의 여부를 결정하면 우리은행이 최종 안건 통과 여부를 결정한다. 이 안건은 채권금융기관의 75% 이상 동의를 받아야 통과된다.

대우일렉 채권단은 자산관리회사(57.42%), 외환은행(6.79%), 신한은행(7.55%), 우리은행(5.37%), 서울보증보험(5.23%) 등이다. /연합뉴스

"사업조정지구 주민피해 최소화"

유영일 LH광주·전남지역본부장

"경영정상화 방안 실천과 경영 목표 달성을 통해 재무 위기를 극복하고 재도약의 기반을 구축하겠습니다."

8일 취임한 유영일 LH(한국토지주택공사) 광주전남지역본부장은 "어려움에 처해있는 LH를 회생시키는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사업조정이 필요한 사업지구에 대해서는 주민 피해를 최소화하도록 노력하고 지역민을 위한 주거복지 사업도 하나하나 행기겠다"고

말했다.

유신임 본부장은 장흥 출신으로 장흥과 전남 대 지역개발학과를 졸업했다. 지난 1981년 한국토지공사에 입사해 광주수완사업단장·전북지역본부장·신도시사업처장 등을 역임했으며, LH 출범 이후 세종혁신도시로 노력하고 지역민을 위한 주거복지 사업도 하나하나 행기겠다고



지난 1981년 한국토지공사에 입사해 광주수완사업단장·전북지역본부장·신도시사업처장 등을 역임했으며, LH 출범 이후 세종혁신도시로 노력하고 지역민을 위한 주거복지 사업도 하나하나 행기겠다고

/박정우기자 jwpark@kwangju.co.kr

"정확한 통계 생산 지역경제 도움"

제정본 호남지방통계청장

"정확하고 신뢰받는 고품질 통계 생산으로 지역발전 기반 조성에 앞장서겠습니다."

10일 취임하는 제정본(56) 호남지방통계청장은 "통계가 지역 경제 발전의 기초다"며 "유관기관과 협력체계를 공공히 해 호남지방통계청을 이끌어야겠다"고 밝혔다.

제 신임 청장은 경남 거제 출신으로 통영고와 성균관대 경제학과를 졸업했다.

/박정우기자 jwpark@kwangju.co.kr



"정확하고 신뢰받는 고품질 통계 생산으로 지역발전 기반 조성에 앞장서겠습니다."

10일 취임하는 제정본(56) 호남지방통계청장은 "통계가 지역 경제 발전의 기초다"며 "유관기관과 협력체계를 공공히 해 호남지방통계청을 이끌어야겠다"고 밝혔다.

제 신임 청장은 경남 거제 출신으로 통영고와 성균관대 경제학과를 졸업했다.

/박정우기자 jwpark@kwangju.co.kr

법원 경매부동산의 매각 공고

1. 매각물건의 표시 및 매각조건 <경매 16개>

사건번호	물건 번호	매각 물건 소재지 및 면적 [㎡]	감정 평가액 최저매각가격 [단위: 원]	비고
용도				
</tbl